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25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1월 11일 (음력 11월 25일) 목요일

## 꽂꽂 언 광주·전남 낙상 사고 ‘노약자 주의’

### 광주시·전남도소방본부, 하루동안 각각 2건·7건 낙상사고 발생

### 대부분 아침 시간대·노년층 집중...“노약자 외출 자제할 필요있어”

대설특보가 내려진 광주와 전남지역 곳곳에서 빙판길에 넘어져 다치는 이른바 낙상(落傷) 사고가 잇따라 노약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광주시소방본부와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하루 동안(오후 2시 기준) 광주 2건, 전남은 7건의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광주 9건, 전남은 11건이다. 사고는 대부분 아침 시간대, 노년층에 집중됐다.



눈꽃 세상으로 변한 광주

광주와 전남지역에 강풍·대설주의가 발효된 10일 오전 광주 남구 봉선동 푸른길공원의 나무에 밤새 내린 눈이 쌓여 있다.

이날 오전 9시57분께 광주 북구 일곡동 모 아파트에서는 1층 공동 출입문을 나서던 50대 여성이 넘어져 허리를 심하게 다쳤다.

비슷한 시각 북구 용봉동에서는 80대 여성이 눈길에 넘어져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난 9일 오전 8시42분께 광주 서구 마북동 한 길가에서는 70대 남성이 빙판길에 넘어져 머리를 다쳤으며 같은 날 북구 연제동 한 세차장 앞에서는 70대 여성이 미끄러져 왼팔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전남의 경우 여수와 나주에서 낙상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이날 여수에서 3건, 목포 2건, 고흥 1건, 나주 1건의 낙상 사고가 났다. 지난 9일은 나주 3건, 화순에서 1건이 발생했다. 대부분 60~80대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다.

전남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당분간 많은 눈과 영하권의 날씨가 예보된 만큼 노약자들은 외출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외출을 할 때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선 안 된다.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적설량은 광주 12.5cm, 함평 14.7cm를 비롯해 영광, 함평, 화순, 나주, 담양지역이 10.0cm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시각 광주와 전남 무안, 장흥, 화순, 나주, 진도, 신안(흑산면 제외), 목포, 영광, 함평, 영암, 해남, 강진, 순천, 장성, 구례, 곡성, 담양, 보성, 완도에 대설주의보가 발효중이다.

기상청은 오는 12일 오전까지 5~15cm, 서해안 지역은 최대 20cm 이상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주춘정 기자



### 얼빠진 의원

자유한국당 김중석 의원이 전기생활용품안전법(전안법) 표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민에게 욕설을 야기한 지음 윤을 단장으로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소상공인 사인을 죽이는 전안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본회의 미루지 말고 참석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욕설을 연상케 하는 '코웃자'를 붙여 보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독재와 국정농단으로 이어져 온 국회의원들의 DNA는 국민에게 욕지거리를 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으로 또다시 발현되었다'며 '말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그 자김중석 의원은 자그(정계)에 퇴장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자료사진=뉴시스



시민들



김중석



노회찬

## 전남, 올해도 가뭄 비상...저수지 물 채우기 총력전

###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 57.5% 그쳐...평년 比 13.5% 낮아

지난해 가뭄으로 피해가 컸던 전남지역은 올해도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돼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는 가뭄지역의 저수지 물 채우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강수량은 878mm로 평년(1443mm)보다 60.8% 적었다.

이 때문에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57.5%에 그쳐 평년(71.0%)보다 13.5%p나 낮았다.

여기에 기상청은 올해 강수량이 평년

과 비슷하거나 적겠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봄 영농기를 대비해 하천, 배수로, 가물막이, 하상 굴착, 관정양수 등을 이용한 물 채우기를 가뭄 발생 피해지역 및 저수율이 낮은 22개 시군 254개소 저수지에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영광 불갑저수지는 영농기가 끝난 지난 12월부터 하루 4000씩 하천수를

이용한 물채우기로 저수율 64.7%(평년대비 89%)를 확보하고 있고진도 둔전저수지도 하루 1200씩 배수로를 이용한 물채우기로 저수율 67.8%(평년대비 92%)를 확보했다.

전중화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상습가뭄이 발생하거나 저수율이 낮은 지역에 대한 선제적 저수지 물 채우기를 통해 올 봄 영농 대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시군에서도 주민들에게 가뭄 대비 물 모으기에 적극 동참토록 지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정은 행복해지고 청년에게 일자리가 생깁니다



## 장시간 근로 체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법정 근로시간 준수하면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